

강릉 갈바리의원

갈바리를 후원해주시는 분께서 자작나무 6그루와 전나무 2그루를 심어주셨다. 미니 크레인과 포크레인을 대동하여 촉촉이 비가 오는 바람에 작업하는 분들은 고생을 하였지만 땅이 물을 흠뻑 머금어 나무는 예쁘게 심어졌다. 항상 갈바리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 전한다.



대구대학교



대구대학교는 11월 15일 대구대학교구청 교육원 가동 3층에서 대상자 및 사별가족모임을 가졌다.

20여 명의 봉사자 및 사별가족이 당일 행사에 참석하여 망자를 기리고, 서로 위로하는 가운데 더욱 돈독한 관계를 다질 수 있었다.



모현가정호스피스

▶ '죽이는 수녀들의 이야기' 개정판 그리고 연극



신국판 2도 | 280쪽 | 12,000원 | 휴출판사
처음 책을 출간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긴 지금 수녀들의 사진도 첨부해서 책을 개정하고 사진도 넣었습니다.

마리아의작은자매회 수녀들의 화보집(?)도 본다 생각하고 개정판을 구입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풍요로운 삶은, 죽음이 삶의 한 과정임을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이 땅에서의 삶을 밝고 가치 있게 꾸러 가기를 바랍니다.”

- 고(故) 김수환 추기경



- 12월17일 OPEN | 대학로 세우아트센터
- 평일 8시, 토요일 3시, 6시, 일요일 3시(월 휴)
- 본 소식지를 지참하시면 20%의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문의 : 02-318-4148

호스피스활동 에피소드를 엮은 책 '마리아의작은자매회의 '죽이는 수녀들 이야기' 를 모티브로 하여 대학로에서 연극이 올려집니다.

연극과 더불어 '호스피스 세미나'와 '관객과의 대화' 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호스피스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를 높이고 호스피스에 관련된 모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연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산성모병원

▶ 호스피스 타기관 방문



8월 24일(월) 지도신부님, 수녀님, 팀장, 사회복지사 및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30명이 대전성모병원 호

스피스를 방문하여 호스피스 현장학습을 하였으며 모범적으로 호스피스를 운영하고 있는 대전성모병원의 여러 가지 현황을 벤치마킹하였다.

▶▶ 10월 한달 동안 10월 9일 세계 호스피스날을 기념하여 본병원에서는 '2010 완화의료캠페인 주간 행사' 행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 사별가족 모임행사**



10월 15일(금) 총 38명의 사별가족이 참석하여 미사-현화(장미꽃)-헌시낭송-식사.

식사 후에는 남구 문화 예술단원의 태평무, 살풀이, 안무공연이 있었고 참석한 가족의 고인의 생전 병원 생활을 담은 동영상 상영하였다.

가족들이 고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지로 써서 서로 나누기를 하였을 때는 모두 눈물바다가 되어 고인을 그리는 시간과 함께 고여 있는 억제된 슬픔을 마음껏 토로하는 시간이 되었다. 햇살마루에서 푸른 가을 하늘에 그 사연을 풍선에 매어 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날려 보내는 감동스러운 장면이 있었다.

*** 웃음치료 특강**



10월 25일(월) 많은 스트레스 속의 현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갖게 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하

기 위하여 완화의료센터 주관으로 성도미니교 선교 수녀회 이미숙(아가다) 수녀님을 모시고 웃음치료 특강을 실시하였다.

직원, 환자 및 보호자,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 및 지역사회 주민 등 313명이 참석하였으며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보면 행복해 진다는 내용과 함께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웃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성바로로 가정호스피스

▶▶ 호스피스 완화의료 캠페인 행사참석

10월 9일 세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에 즈음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새로이 삶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캠페인이 10월 7일~10일까지 각 지역 각 기관별로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의 주관 하에 여러 호스피스 협회와 학회 및 기관들이 10월 9일 청계광장에서 함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캠페인을 하였다.

이날 우리 성 바로로 가정호스피스센터는 한국가톨릭 호스피스협회 산하 기관으로 참가하여 우리센터의 홍보와 예술요법팀이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였다. 이날 센터 호스피스팀과 자원봉사자가 하나 되어 행복한 마음으로 의미있는 하루를 보냈다.

▶▶ 해바라기 가족모임(사별가족)과 추모미사

지난 11월 9일 위령성월을 맞이하여 먼저 세상을 떠난 연령들을 위한 사별가족 지지모임을 가졌다.

1부 나눔의 시간은 센터 해바라기실에서 사별후의 슬픔과 현재의 삶을 함께 나누었다.

2부에는 선승성당에서 김우성 신부님의 집전으로 고인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기도하는 추모미사를 가졌다.

미사후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따뜻한 차와 다과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성바로 복지병원

▶ 신규 호스피스 봉사자 모임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을 이수한 신규 봉사자들이 지난 10월 20일 성 바로 복지병원에서 호스피스 봉사를 하기로 하여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및 나눔을 가졌다. 고통 속에 투병중인 암환우들과 사랑과 우정을 나누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벼이 되길 바란다.

▶ 사별가족 모임



위령성월을 맞아 우리 병원에서 선종하신 분들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고인들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월 14일 오후 2시 레크리에이션,

생활 나눔, 미사를 통해 고인을 추모하였다.

먼저 가신 분들이 남기고 간 유지를 잘 받들어 열심히 사시는 것을 보면서 가족들과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참석해주신 모든 사별가족께 감사드립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제9회 사별가족모임 및 추모제를 2010년 11월 9일 오후2시 부터 수녀원 강당에서 열어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50명의 사별가족과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함께 고인들을 추모하고 사별가족들을 위로하였다. 특별히 찰흙으로 고인을 회상하는 시간을 통해 그리움을 몸과 마음으로 승화시키는 값진 시간을 가졌다.



순천 성가롤로병원

▶ 병실차액이 부과되지 않는 다인실(4인실) 운영

성가롤로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이 내일이면 늦을 오늘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새롭게 변화하였다. 호스피스 간호를 받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간병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병실 차액이 부과되지 않는 4인실 병실을 개설하였다. 광양자활센터와 협약하여 24시간 공동 간병인을 두고 10월1일부터 병실을 운영하게 되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 사별가족모임 추모제 및 미술 작품 전시회 개최



11월 12일에는 지난 1년 여동안 호스피스병동을 거쳐간 사별가족을 대상으로 추모제를 하였다. 새로운 모습으로 준비한 이번 추모제는 정성스레 준비한 프로그램을 통해 슬픔으로 인한 상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며 그동안 입원중인 환우분들이 만든 미술작품을 전시하여 가신분들과의 소중한 추억들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미술작품은 추모제후 병원 로비에 2주간 전시를 하여 병원내

방객과 입원환자, 직원들의 큰 관심을 갖게 하였고 호스피스를 홍보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 순천만으로 입원환자 आय회



“계속 병원에만 있으니 답답해요, 뛰쳐나가고 싶어요” 어느 환자의 절박함에 부랴부랴 आय회 계획을 세우고

나가게 되었다. 확 트이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드넓은 순천만으로 입원환자, 보호자와 봉사자,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다녀온 순천만은 모처럼 좁은 공간이 아닌 넓은 품안의 자연속에서 맘껏 소리도 지르고 노래도 부르고 흥겨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깊어가는 가을 속에서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창원파티마병원

▶ 호스피스완화의료 증례발표



창원파티마병원 은혜병동에서는 지난 2010년 7월 12일 제 27차 호스피스 완화의료증례발표를 “화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부산·울산·경남지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증례발표라 부·울·경지회장님을 비롯한 이 지역의 많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의료진과 팀원들이 참여해 주셨다. 뜨거운 관심과 사랑 속에 감사를 느끼며 행복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다.

▶ 제1회 창원파티마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심포지엄



지난 2010년 10월 2일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사랑하는 많은 의료진, 사회복지사, 약사, 영양사, 자원봉사자 등의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창원파티마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날 최수자 병원장님께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심포지엄을 통해 호스피스에 대한 이해를 깊히하고 통증치료와 암환자에 대한 임상관리를 통해서 말기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임상경험들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이어 훌륭한 교수님들의 알찬 강의를 진행되었고,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강의로 인해 시간이 다소 연장되었지만 청중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멋진 마무리를 하였다.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

▶ 제10회 전국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날, 2010년 심화교육

지난 10월 5일 가톨릭대학교대전성모병원 상지관 9

층 대강당에서 제10회 전국 자원봉사자의 날과 2010년 심화교육이 전국 본협회 산하기관장과 자원봉사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날 특강에는 부산대 조현 교수가 봉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직무스트레스를 음악요법으로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를 하였고 전국 각 기관에서 호스피스 봉사활동에 모범이 되어 추천된 7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공로상을 수상 받아 그간의 노고를 동료와 가족들 그리고 그날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기쁨을 나누었다. 축사는 김석영 대전성모병원 의무원장님이, 미사는 박중훈 신부님이 집전해 주셨다.



▶ 2010년도 기관대표자회의

12월 4일 오전 9시부터 합정동 전.진.상교육관에서 2010년도 기관대표자회의가 전국 40여곳의 기관중 기관대표 23분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1부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발전방안에 대한 국립암센터 윤영호 교수의 강의를 듣고 그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운영유형에 따라 대표 기관장님들이 현장에서 직접 일하면서 느꼈던 국가적 지원부족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2부에서는 3그룹으로 나누어 2011년도 총회준비사항, 협회 활성화, 후원회 활성화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본 협회 지영현 지도신부의 미사로 회의를 마쳤다.



▶ 2010년 완화의료 캠페인 주간행사

10월 9일 청계광장에서 세계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을 맞이하여 국립암센터가 주관하여 진행한 완화의료



주간에 본 협회에서는 부스홍보활동으로 동영상 상영, 홍보물 전시, 협회지와 후원서 배부, 물품 판매 등을 했다.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의 설립취지와 활동을 알리고 전국민의 완화의료 인지도를 높이고, 그 필요성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는 유익한 행사였다.

▶ 대전가톨릭대학교 제11회 비배섬 축제



10월 2일 “당신은 희망입니다” 라는 주제로 대전 가톨릭대학교 교정에서 축제가 있었다. 축제에 참가한 가톨릭 5단체와 함께 본 협회에서도 강의실을 배정받아 협회지와 후원서를 배부하며 각 산하기관의 홍보물 전시와 동영상도 상영을 했다. 호스피스에 대한 내방객들의 궁금한 질문에 답하며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일반인들에게 가깝게 전달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 한국가톨릭호스피스 후원회 발족

9월 27일 한국가톨릭호스피스 후원회가 발족되었다. 후원회장에는 김남초 가톨릭대학교간호대 교수, 부회장에는 전해숙 호스피스연구소 간사, 총무에는 유양숙 가톨릭대학교간호대교수, 간사에는 이옥희 가톨릭호스피스사무원이 위촉되었다. 한국 호스피스의 발전과 다양한 사업들이 원활이 이뤄지려면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 2010년 9월 이후 신규회원

- 광주보훈병원
김광신, 김선희, 김희옥, 류진관, 박동신, 서정옥, 유경숙, 이숙자, 전선미, 정선순, 차경숙, 최종분, 한명숙, 홍화좌
- 부천성모병원
유행순, 이건재, 이구혜, 이영수

- 부산대학교 암센터
최천수
 - 서울성모병원
강경자, 강원근, 김정신, 김광미, 김미리, 김민경, 김보현, 김정은, 박송유, 박재은, 박하나, 성유정, 어미화, 이상용, 이인자, 장혜란, 조추자, 채연문, 최은희, 태레지나
 - 한국가톨릭호스피스 협회
이옥희
 - 성바오로병원
노혜숙, 심수복
 - 포항성모병원
김정호
- ▶ 2010년 평생회원
김남초, 노유자, 캔디스마틴

신규회원가입을 축하드립니다.***

▶ 2010년 후원회원

- 일시납 회원
김남초, 김진, 박명희, 박재순, 이선미, 허정운
- 월납 회원
김희승, 유송자, 이진경, 이옥희, 이옥연, 신로미, 이영희, 윤외숙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산하기관 변동사항

포항성모병원(김정호수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성미순)이 다시 산하기관으로 등록되었고, 양평가정호스피스(양석순 수녀)가 수녀님의 이직으로 지역보건소로 흡수되어 탈퇴하였습니다.